

# 1991년도 미국 산업위생학회 참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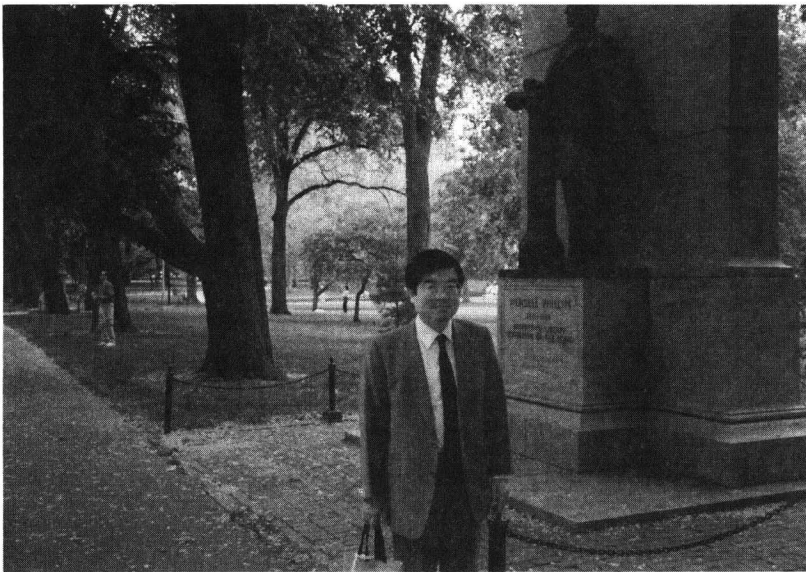
연세의대 노재훈

신시내티를 출발하여 미국 산업위생학회가 열리는 보스턴에 도착한 것은 5월 30일 오후 4시였다. 동행한 이경종선생과 숙소인 Best Western Inn at Childrens'로 향하는 도중 차창을 통해 비친 보스턴시내는 다른 미국의 도시와 달리 유럽의 도시를 연상케 하였다. 하얀 대리석 건물의 하바드 의과대학과 아동병원이 바로 옆에 있어 숙소에는 이 기관을 찾는 많은 내빈객으로 붐비고 있었다. 미국의 다른 도시를 방문할 때와 같이 짐을 풀자마자 전화번호부를 찾아 이곳의 명물 식당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이곳에 큰 차이타운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호텔 프론트에서 얻은 지하철 지도를 들고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말라는 종업원의 말을 뒤로하고 지하철에 오르는 시간은 7시 30분. LA폭동이 일어난 지

일주일 밖에 안되어 공연히 앞 좌석의 젊은 흑인의 시선이 부담이 되어 종종걸음으로 중국식당에 달했다. 중국 음식점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이 그렇지만 값과 맛은 일품이었다.

보스턴의 첫 밤을 지내고 미국 산업위생학회가 열리는 보스턴 상공회의소에 학회측에서 준비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도착하였다. 금년의 주제는 “작업과 건강 ; 전통과 개혁”이었다. 학회 시작전 이를 동안에는 매년 산업위생사의 보수교육이 있어 보수교육점수를 이수해야 하는 미국의 산업위생사들이 미리 참석하고 있었다. 이번 보수교육에는 실내공기오염의 해결책을 포함한 105개의 과정이 있어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 필요한 강좌를 수강하게 되어 있다. 학회 첫날인 6월 1일 8시에의 개회식에서는 회장단의 축

사와 미래학자인 사의 “21세기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미래의 산업사회와 이에 대처하는 산업위생사의 역할에 대하여 강연이 있었다. 개회식이 끝나고 10시부터 본격적으로 학술대회가 시작되었다. 학술대회의 구성은 첫째, 미리 정한 주제를 놓고 몇분의 전문가가 이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자와 참석자들이 이를 토의하는 원탁회의, 둘째, 분과별 주제에 따른 구연, 셋째, 연구내용을 일정크기의 포스터에 게재하여



▲ 학회가 열린 보스턴의 한 공원에서의 필자

일반 참석자와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는 포스터전, 넷째, 특별강연, 다섯째,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기관과 회사의 제품 전시로 이루어진다.

분과별 주제를 살펴보면, 산업위생분야의 컴퓨터 이용, 호흡기 보호, 의료산업분야의 위생, 납, 실내공기오염, 폭로평가전략(exposure assessment strategy), 에어로졸, 유해인자 관리와 대책, 위생공학, hazard communication, 비전리 방사선, 소음, 국제산업보건 활동, 호흡독성학, 의학적 감시, 환기, 석면관리, 폐기물관리, 생물학적 모니터링, 지역사회환경위생, 농업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유해가스, 개인보호구, 산업보건역학, 분석화학, 영세기업의 산업위생, 생식기관 독성학 등으로 산업위생의 전 분야에 관한 것으로 무엇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주제이지만 주제발표가 10개의 방에서 동시에 열리니 이 주제의 10분의 1밖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또한 포스터전 역시 오전 오후에 각각 위의 주제들로 열렸는데 발표자는 두시간 동안 자기의 포스터앞에 서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참석자와 깊은 내용까지 대화가 가능하였다.

이번 학회에서 필자는 석탄 및 석유화합물의 불완전 연소시 생성되는 발암물질인 dibenzocarbazole과 dibenzacridine의 발암기전과 이들의 생물학적 모니터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DNA adduct에 관하여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이 포스터에 미국 각 대학에서 생물학적 모니터링과 발암물질을

연구하는 학자가 많이 참석하여 상호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근로자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하였다. 국내에서는 산업보건연구원의 정규철 원장님, 석면에 관해 포스터 발표를 하신 백남원 교수, 현지 유학중인 김록호 선생, 하바드대학 박사과정에 있으며 NO<sub>2</sub> dosimeter에 관한 포스터를 발표한 이기영 선생이 참석하였다. 분과별 주제발표에서는 이에 흥미있는 참석자와 같은 기관에 있는 참석자들이 참석하여 성원을 하여주고 연제가 끝나면 많은 참석자가 자리를 떠 외국 발표자의 경우에는 좌장과 몇명의 참석자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원탁회의에서는 많은 참석자가 격렬한 토론을 벌여 많은 대조를 이루었다.

모든 국제학회가 너무나도 많은 주제를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표하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반면 한주제를 가지고 많은 학자가 한 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산업위생학회이어서 인지 외국의 참석자는 유럽과 남미를 제외하고는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양권의 참석이 저조하였다. 이방인이 느끼는 소외감을 달래며 다음 기착지인 뉴욕을 향해 출발하면서 내년도에는 더욱 많은 국내 학자의 참석을 기대하였다.

